

축사

동아연구소는 서강의 자랑이다

이상우 | 제2대 소장

동아연구소(이하 東亞研)은 서강의 귀한 자산이다. 서강의 울타리에서 東亞研이 자라왔지만 이제 東亞研이 서강을 빛낼 때가 왔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로 東亞研을 키워주기 바란다.

東亞研이 탄생한 1980년대 초에는 의미 있는 활동을 펴던 지역학연구소가 고려대의 아세아문제연구소(亞細亞問題研究所, 소장 金俊燁)와 한양대의 중소연구소(中蘇研究所, 소장 柳世熙)밖에 없었다. 두 연구소는 모두 국내에서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다. 심지어 ‘亞研’은 알아도 고려대를 모르는 외국 학자들이 있을 정도였다. 부러웠다. 서강도 지역학연구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연구소 신설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았었다.

간절히 바라면 하늘이 돕는다고 했던가? 1980년에 미국에 소재한 기독교고등교육재단에서 중국학연구를 하는 기독교대학에 연구비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어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교무처장 트레이시(Novert J. Tracy) 신부가 섭외를 맡고 사학과 全海宗 교수를 준비위원장으로 모시고 내가 실무를 맡아 그해 가을 실사단의 실사까지 마치고 1981년에 발족한 것이 東亞研이다.

미국 기독교고등교육재단은 미국 신도들의 성금으로 중국에 연칭대학(燕京大學, 현재의 북경대학 자리)을 세우고 운영하던 재단인데 중국

이 공산화되면서 대학이 문을 닫게 되어 당시 연칭대학이 소장하고 있던 귀중한 문헌자료는 하버드대학에 기증하여 동 대학 예칭연구소를 만들고 후에 중국 정부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아시아지역의 기독교대학에서 중국학연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이 재단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연세대, 이대, 계명대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정치학과에 개설한 중국정치 관련 과목과 중국어과목 교과과정, 사학과의 중국사 관련 교과과정을 열거하고 각종 교육·연구 업적을 정리 제시하여 결국 ‘서강중국학연구소’가 지원 대상 연구소로 지정 받았다. 그러나 중국으로 연구 대상 지역을 한정하면 앞으로 많은 제약을 받을 것 같아서 학교본부와 절충하여 연구소를 정식으로 발족할 때는 ‘서강동아연구소’로 출범하고 그 속에 중국연구실을 두기로 했다. 1981년의 일이다. 초대소장으로 金海宗 교수가 취임하고 나는 부소장직을 임시로 만들어 연구소 운영실무를 맡았었다. 연구소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金海宗 교수 연구실에 간판을 붙였다. 그러나 개소식에는 주한중화민국 대사 덩마오스(丁懋時), 金俊燁 교수 등 여러 귀빈들이 참가하여 축하를 해주었다. 그리고 『東亞研究』를 창간하여 연구소의 구색을 갖추었다.

1983년에 내가 제2대 소장을 맡았다. 김대건관(K관)이 준공되어 사무실도 확보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책들을 모두 가져다 자료도서관도 개설했다. 마침 국제교류협회(현재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金聖鎭 회장(전 문공부 장관)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어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 수용”, “아세아에서의 공산주의 수용”, “아세아에서의 기독교 수용” 등 큰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하여 국내외에 東亞研의 존재를 알릴 수 있었고 대만의 國立政治大學 부설 國際關係研究所와 연례한중포럼을 열어 중국연구의 기틀을 잡았다. 그리고 많은 대학원생들이 연구소 활동에 참여하여 東亞研이 한국에서 중국연구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연구소와 연계한 대학원이 필요해서 공공정책대학원을 설립하

여 이 안에 지역학과를 설치하였다.

東亞硏은 이제 창설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東亞硏究』가 50호를 기록하게 되었다. 나의 서강 생활 27년 중에서 20년을 바치다시피 했던 東亞硏이어서 나로서는 감회가 깊다. 나도 東亞硏을 위해 헌신했었지만 나도 東亞硏의 울타리 속에서 자라왔기에 항상 나는 東亞硏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대학 부설 연구소가 발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대학 내의 교수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東亞硏은 초기에 교수들의 참여 유도에 실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둘째, 대학원생들이 많이 참여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전문가 양성이 주된 목적이어야 한다.

셋째, 학술지 간행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외부에서 연구소를 평가하는 기준은 학술지이다.

넷째, 과감하게 외부에 개방해야한다. 다른 대학 교수, 그리고 외국 교수들의 단기연구체류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東亞硏을 자랑스러운 연구소로 발전시켜온 역대 소장 및 관련 교수, 대학원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